

보도시점 2024. 3. 28.(목) 11:00
3. 29.(금) 조간

배포 2024. 3. 28.(목) 09:00

농식품부, '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

-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(가이드라인) 개정안 심의, 위기단계별 기준가격
현행화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활용도 제고 및 수급안정 기반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3월 28일(목)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(aT)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한다.

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, 생산자,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.

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(가이드라인)*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(가이드라인) :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불안 위기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,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·단체의 대응요령 체계화

<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2024. 3. 28.(목) 14:00~16:00, 에이티(aT)센터(서울 양재동)
- 위원장 : (민간)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, (정부)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
- 위원 : 정부(6)-농식품부, 기재부, 농진청, 통계청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
생산자(7)-농협경제지주, 무배추생산자연합회, 마늘연합회, 양파연합회,
고추산업연합회,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, 농식품법인연합회
소비자(4)-소비자단체협의회, 김치협회, 외식업중앙회, 도매시장법인협회
학계(3)-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,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관측센터장

‘농산물 수급관리 지침(가이드라인) 개정안’은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갱신하고, 품목·작형별 비축·방출 관련 표준 프로세스(안) 등을 마련하여 지침(가이드라인)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이다.

농식품부는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‘농산물 수급관리 지침(가이드라인)’을 개정하고,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앞으로도 생산자,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,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우식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최수빈 (044-201-224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